

가게 내기 좋은곳? '마이 통계로'가 알려준다

통계청, 통계지리정보 콘텐츠 간편 검색 서비스 지역·업종 등 1147개 자료 생애주기·관심 분야 표시

'우리 동네 카페 내기 좋은 곳은 어디일까.' 창업을 앞둔 사업자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통계정보 '마이 통계로'가 지난 21일부터 운영되고 있다.

통계청은 인터넷 이용자가 접속지역을 중심으로 공간통계정보를 간편하게 볼 수 있는 '마이 통계로' 콘텐츠를 지난 21일부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kostat.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마이 통계로'는 보다 쉽게 공간통계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다. 정부기관·학술연구기관의 이용자뿐만 아니라 일반 이용자도 통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간편함을 더했다.

마이 통계로 서비스는 1147개 공간통계정보를 생애주기와 관심 분야별로 나눠놓은 것이 특징이다.

어린이·청소년·청년·장년·노년 등 연령별로는 물론 1인 가구·육아 여성 관련 통계도 분류했다.

관심분야는 먹거리·살거리·일거리·탈거리·배울거리·보고놀거리·건강거리·안전거리 등 8개 분야다.

이용자가 자신의 연령과 관심 분야를 설정

하면 연관된 통계목록을 볼 수 있고, 이를 지도 위에 구현할 수 있다.

카페 창업을 한다고 가정하면 먼저 연령대별로 나뉜 '생애주기'를 지정하고 '관심분야'에서 '먹거리'와 '일거리'를 선택하면 된다. 이 목록에는 '청소년 인구 현황', '청년 인구 현황', '카페 사업체 현황', '카페 업종 사업체 밀집도 현황' 등 카페 부지 지정에 필요한 공간통계정보가 있다.

또 '대화형통계지도'를 활용하면 '카페 사업체 현황'을 확인하며 골목마다 카페 위치를 볼 수 있다.

지역별 통계를 비교하고 싶다면 '생활업종'과 '기술업종'으로 나뉜 '업종 통계지도'를 참고하면 된다.

광주지역에는 총 4만9226개 생활업종 사업체 가운데 음식점이 1만7810개(36.2%)로 가장 많았다. 서비스(33.6%·1만6564개), 도소매(28.8%·1만4189개), 숙박업(1.3%·663개) 등이 뒤를 이었다.

생활편의업종은 36종으로 분류됐다. 광주 지역 카페 비중은 14.3%(2552개)로, 전국 카페 비중 12.7%(8만3445개) 보다 높았다. 치킨집도 전국 비중(5.6%·3만6791개) 보다



'마이 통계로'서 광주 서구 치킨집을 검색한 화면.

소폭 높은 5.9%(1056개)를 기록했다.

'마이 통계로'는 정부혁신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며 '국민디자인단'이 기획단계에 참여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화형통계지도'에 지역통계를 볼 수 있도록 'e-지방지표'를 추가하고, '통계지도체험'을 개선하는 등 고도화된 SGIS를 서비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이용자의 편의성을 강화

조계현 원장의
특 특 창업이야기



위기 대응전략 강화 필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효율적인 코로나19 방어가 효과를 발휘해 금방이라도 내수경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졌지만 뜻하지 않게 신천지 슈퍼전파자의 등장이라는 악재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수는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폭증했고 다른 지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내수경기에 대한 기대와 소비심리는 더욱 냉각됐고 매출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대다수의 자영업자들은 이 불안정한 상황이 언제쯤 해소될지에 대한 막막함에 이레저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정부도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빠진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추경을 빠르게 세워서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운영자금 저리대출 지원에 나서겠지만 추경의 특성상 예산의 한계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지원기준도 매출 하락폭이 큰 자영업자들을 우선으로 할 것이기에 정부 차원의 지원대상이나 대상별 지원예산의 한계가 있을 것이다. 결국 시중은행들도 자영업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운영자금 대출문턱을 낮추고 금리도 정부 지원수준에 최대한 근접한 저리로 낮춰서 이 국가적인 위기극복에 적극 동참해줘야 한다. 건물주들도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낮추는 방식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의 위기극복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재 코로나19의 위기경보도 심각단계로 격상된 만큼 자영업자들의 매장 운영전략도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위기 대응전략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매출은 줄었지만 아직 적자수준까지는 아닌 자영업자들의 경우는 그나마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체력은 되겠지만 문제는 이미 적자로 전환된 자영업자들의 경우 훨씬 더 심각하게 이 상황을 체감하고 있을 것이기에 그에 따른 대응전략도 실행시점을 떠나서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럴 때 대응전략은 크게 매장관리 부문, 운영자금 부문 그리고 직원 부문으로 나눠서 고민을 하게 된다. 먼저 매장관리는 고객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수시 매장 소독과 상시 환기, 식기 소독,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 공기정화기 설치, 손소독제 비치, 수저나 젓가락, 그릇 등 끓여서 세척하기 등을 실행해 이에 대한 안내문을 매장 내에 붙여서 고객들의 심리적인 안정 분위기를 최대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영자금은 정부의 정책지원만 바라보지 말고 필요시점에 가능한 본인의 보유자금이나 다양한 금융권 대출상품이나 한도를 사전에 체크해서 인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직원들에 대한 판단은 처음부터 너무 극단적으로 구조조정을 고려하기 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며 직원들을 대상으로 순차적, 한시적으로 부분 유급휴가나 무급휴가를 활용해 고동을 분담하고 코로나 상황 종료 후에는 기존 직원의 변동없이 빠르게 안정적인 매장운영이 가능하도록 직원들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미 인력의존도가 높은 일부 업종이나 중, 대형 매장에서는 매출 하락으로 인한 유휴인력의 발생으로 인한 운영비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직원들의 무급휴가나 구조조정에 나서는 안타까운 모습도 가끔 눈에 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 악재로 인해서 큰 폭의 매출하락은 곧바로 적자로 이어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직원들 중 일부를 정리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가슴 아픈 선택지로 내몰리게 되는 것이다. 현재 정부의 코로나19의 적극적인 방어를 위한 노력과 수고에는 기꺼이 박수를 보내며 우리 모두가 정부의 지침이나 협조요청에 적극 동참해 빠르게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국지역산업연구원 원장>

해수부, 올해 첫 수산창업펀드 300억원 조성

(단위:억원)

수산모태 펀드명	존속기간	총규모	주체별 출자규모	
			정부	민간
IDV-IP수산전문투자조합	'13.7 ~ '20.7	150	75	75
캐피탈원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2호	'14.8 ~ '21.8	150	100	50
캐피탈원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3호	'15.7 ~ '23.7	150	100	50
K-Innovation수산전문투자조합	'16.9 ~ '24.9	200	140	60
POSCO-NSC수산투자조합	'17.8 ~ '25.8	150	100	50
KB 신자산어보수산투자조합	'18.7 ~ '26.7	150	100	50
IDV-IP 수산전문투자조합 2호	'19.12 ~ '27.12	200	140	60
마이다스동아-엔에스씨 수산펀드 2호	'19.12 ~ '27.12	150	105	45

운용사 다음달 31일까지 공모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총 300억원 규모의 수산벤처창업펀드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수산벤처창업펀드 신규펀드 운용사를 다음 달 31일까지 신규펀드 운용사를 공모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10년부터 수산펀드를 조성했다. 수산펀드는 정부의 수산모태펀드와 민간 자본이 합동으로 출자해 조성된다. 이후 약 8년간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산기업 등에 대한 투자와 회수

를 진행한다. 지난해까지 총 1820억원 규모로 11개를 만들었으며 이중 802억원이 수산기업에 투자됐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수산벤처창업펀드는 수산 분야의 신규 유망기업을 발굴·육성하고 수산 창업을 활성화하는 펀드다. 벤처, 창업기업, 신기술 활용기업 등에 중점 투자한다.

수산벤처창업펀드 운용사 공모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공모기간 내 제안서와 관련 서류를 구비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로나19 확산 방지' 창업설명회 온라인 중계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유튜브서 오늘 오후 2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들이 사업설명회를 온라인 중계하기로 했다.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설명회를 26일 오후 2시 동구 서석동 광주영상복합문화관 4층에서 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유튜브 채널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업도약'을 통해서 볼 수 있다.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창업 3~7년 차 도약기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스케일업 390개사·혁신성장 150개사 등 540개를 뽑으며 최대 사업자금 3억원을 지원한다. 영암·목포·해남·군산 등 고용·산업 위기지역 소재 창업기업이면 서류평가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신청은 오는 3월10일까지 할 수 있다.

설명회는 2020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소개와 ▲지원사업 공고 내용 및 사업신청 주요사항 설명 ▲온라인 실시간 질의응답 ▲상담장구 운영 등으로 구성됐다.

설명회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한편 한국수자원공사도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진행하며 유튜브 설명회를 진행한다. 수자원공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물·특화·스마트시티 분야 등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55개 기업 신청을 받는다.

수자원공사는 이번 공모를 통해 환경 및 에너지(물·특화), 스마트시티 분야 사업화 지원 35개 기업, 성장촉진 프로그램 20개 기업까지 총 55개 기업을 선발할 계획이다.

참가 희망기업은 3월10일까지 'K-스타트업 홈페이지'에서 주관기관을 한국수자원공사로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된 기업에는 전체 약 60억 원의 자금을 통해 신규 인력 채용과 사업화 및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한다. '제품개선 아카데미' 과정 등 성장촉진 프로그램을 통한 제품개선과 국내 유통, 수출 등 분야별로 특화된 교육과 지원 서비스도 병행된다.

수자원공사는 지난해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36개 참여기업의 순 매출 44억 원 증가, 133명의 신규 인력 채용, 171억 원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물산업플랫폼센터는 자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영상 설명회를 연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

